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은 ‘호을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은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은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 ⑤ ㉠은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은 ‘달잡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가)의 ‘발을 뿌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의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